

Q-letter

08

2026. August

국가자격정보 뉴스레터

「이런 자격도 있어요」
전기산업기사 청년층 유망자격

자격제도 변경사항 & 서비스 안내

- 공공조달관리사 자격증 안내
- 청년·중장년 유망자격, 과점평가형 자격 안내
- 우리 지역 디지털국가자격시험센터 안내
- 국가기술자격 피드백 서비스 제공 안내
- 청년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안내
- 국가기술자격 안전철칙,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모두의 노력
- 국가기술자격 작업형 실기시험 안전등급제
- 간편하게 발급가능한 나의 자격 취득 내용
- 고용24에서도 국가자격 디지털배지 활용 가능
- 모바일자격증, 디지털배지 발급 방법
- 직무능력은행제, 국가공인 민간자격까지 연계 확대

언론에 비친 자격

- 이거 괜찮다...폭염에 뜨는
'공조냉동기계기사' 무엇인가?
- A시대에도 '컴활' 건재...
청년 취업자 자격증 1위

2026년 8월 국가자격시험 일정

- 8.1 제63회 변리사 2차 시험
- 8.1~8.5 제2회 기사 실기시험(7.18.~8.5.)
- 8.1~8.15 제139회 기술사 면접시험
- 8.7~8.31 제3회 기사 필기시험(8.7.~9.1.)
- 8.8 제21회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1차
시험, 제40회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차 시험
- 8.12~8.15 제16회 산업안전지도사 3차 시험,
제16회 산업보건지도사 3차 시험
- 8.15 제12회 소방안전교육사 1,2차 시험
- 8.22 제140회 기술사 필기시험,
제34회 청소년지도사 1차 시험
- 8.29 제12회 손해평가사 2차 시험
- 8.29~8.30 제35회 공인노무사 2차 시험
- 8.29~8.31 제80회 기능장 실기시험(8.29.~9.16.),
제3회 기능사 실기시험(8.29.~9.16.)

자격취득자 수기

- 도로 위의 주치의가 되기 위해
- 나는 '진새조' 진갑이 넘어 자격을 딴
대한민국의 새내기 조경기사다

국가자격 부정예방

- 국가자격 부정행위 근절 및 자격증 불법대여 예방



HRDK 한국산업인력공단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발행일

2026년 8월 25일

발행처

한국산업인력공단 능력평가기획부

구독신청 및 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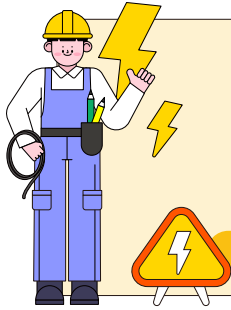
dahye9110@hrdkorea.or.kr



「이런 자격도 있어요」 전기산업기사



QR코드를 스캔하면 큐넷(Q-Net) 국가자격 종목별 상세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래 산업을 밝히는 **전기 전문인력**, **청년 유망자격**으로 주목받다!

전기설비의 설계부터 시공, 관리, 유지보수까지
안전하고 효율적인 전기 시스템을 책임지는 전기산업기사를 소개합니다!

산업의 전기화와 에너지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취업 경쟁력을 높이는 전기 분야 대표 국가기술자격



- (수행 직무) 전기 기계·기구의 설계·제작·관리와 전기설비를 구성하는 각종 기자재의 규격·크기·용량 등을 산정하기 위한 계산 및 자료 활용, 전기설비의 설계와 도면·시방서 작성, 설비점검, 유지관리, 시험작동 등의 전문 업무 및 전기안전관리자로서 전기설비의 안전한 운영·관리 업무 수행



자격 취득 방법

(시행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필기

1. 전자자기학
2. 전력공학
3. 전기기기
4. 회로이론
5. 전기설비기술기준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실기

전기설비설계 및 관리

필답형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단위 : 명)



검정 현황 (최근 5년)

연도	전기산업기사					
	필기			실기		
	응시	합격	합격률(%)	응시	합격	합격률(%)
2025	33,021	7,327	22.2%	14,696	5,694	38.7%
2024	31,584	6,189	19.6%	10,961	3,105	28.3%
2023	29,955	5,577	18.6%	11,193	5,668	50.6%
2022	31,121	6,692	21.5%	16,223	3,917	24.1%
2021	37,892	6,991	18.4%	18,416	5,020	2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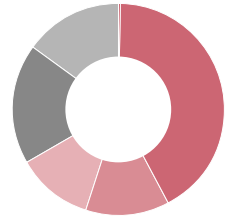
종목 응시 현황

* 실기 응시자 기준

2023

총 응시자수
9,104명남성 응시자
8,633명
(94.8%)여성 응시자
471명
(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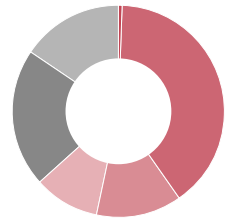
10대	24명(0.3%)
20대	3,834명(42.1%)
30대	1,151명(12.6%)
40대	1,077명(11.8%)
50대	1,663명(18.3%)
60세 이상	1,355명(14.9%)



2024

총 응시자수
10,137명남성 응시자
9,622명
(94.9%)여성 응시자
515명
(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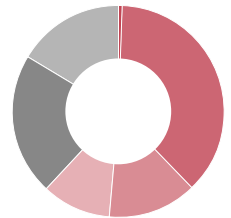
10대	69명(0.7%)
20대	4,023명(39.7%)
30대	1,323명(13.0%)
40대	1,034명(10.2%)
50대	2,139명(21.1%)
60세 이상	1,549명(15.3%)



2025

총 응시자수
14,696명남성 응시자
13,874명
(94.4%)여성 응시자
822명
(5.6%)

10대	85명(0.6%)
20대	5,502명(37.4%)
30대	1,984명(13.5%)
40대	1,540명(10.5%)
50대	3,208명(21.8%)
60세 이상	2,377명(16.2%)



진로 및 전망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전기 전문 분야 자격 취득 로드

STEP 1

전기 관련 기초역량
대표 자격 및 준비

[전기기능사]

전기 관련 학과 이수
전기 분야 기초이론 및 현장 경험

대표 직무

전기설비 기초 점검
전기공사 및 배선 보조
설비 유지보수
전기 관련 현장 업무

STEP 2

전기산업기사

대표 직무

전기설비 설계 및 관리
전기설비 유지·보수
전기공사 및 시공관리
생산설비 전기관리
전기안전 관련 업무

주요 시험과목

전기자학 | 전력공학 | 전기기기 | 회로이론
전기설비기술기준 | 전기설비설계 및 관리전기산업기사는 관련학과·경력 등 정해진
응시자격을 충족해야 하며, 정확한 자격요건은
Q-Net의 응시자격을 통해 확인하세요.

STEP 3

전기기사 및 전기분야
전문 엔지니어

대표 자격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전기분야 상위 자격 및 전문교육

대표 직무

전기설비 설계·관리
전기안전관리
공장·플랜트 전기설비 관리
전력설비 유지관리
전기공사 현장관리
시설·생산설비 전기 책임자
전기기술 분야 전문 엔지니어

최종 성장 방향 기초 전기역량 > 전기산업기사 취득 > 실무경력 축적 > 전기기사·연계 자격 취득 > 전기분야 전문 엔지니어

연간 196조 원 규모! 공공조달 시장을 이끌 치트키 공공조달관리사 자격증!



공공조달 시장의 패러다임 변화를 이끌 전문인력 수요 증가 전망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공조달 분야는
국가 및 지방정부의 법령·규제 준수가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사회질서 유지와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서비스 분야 국가기술자격으로
공공조달관리사가 신설됐다. 단순한 스펙을 넘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투명한 스마트 행정을 선도할
필수 역량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고용노동부는 새롭게 도입되는
공공조달관리사 자격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고용24의 채용 데이터 및 공공조달 시장 내 실무 인력의
임금 구조를 다각도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연간 196조 원 규모에 달하는 조달 시장의
특성상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공단은 본 자격 취득자가 향후 우대 채용 공고 등에서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평균 제시임금의
가이드라인을 정립하고, 자격 취득자의 중위임금 수준을
체계적으로 추적·관리하여 국가기술자격의 실효성을
입증할 계획이다.

공공조달 자격 제도의 수요 및 시장 규모는



공공조달시장 규모
연간 196조 원



나라장터 등록 조달기업
약 53만 6천여 개

전국 발주기관
약 6만 6천여 개



*2022년 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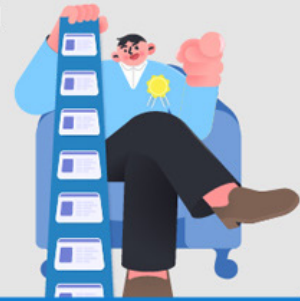
신설 자격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 1** 조달 시장 전문성 견인
연간 196조 원 규모의 공공조달시장에 전략적·체계적 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가기술자격의 공신력을 확립
- 2** 53만 조달기업 선제 보호
법 제도의 복잡성으로 인한 비전문가의 자문 피해를 방지 및
일부 컨설팅 업체의 위법 행위를 원천 차단
- 3** 정규 교육 생태계 조성
전국 5개 전문대학 공공조달학과 신설 연계를 통해
정규 교육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자격 운영 가치를 극대화

공공조달관리사 핵심 직무 역량 가이드!

수많은 자격증 가운데 지금 고용 시장과 산업계가 가장 주목하는 절대적인 키워드는 단연 '실무형 전문성'과 '희소성'이다. 변화하는 제도와 거대한 시장 규모 속에서 고유한 영역을 선점하는 자격증이야말로, 단순한 스펙의 한계를 넘어 커리어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가장 확실한 이정표가 된다.

그렇다면 올해 자격증 트렌드의 중심에 선 공공조달관리사가 독보적으로 특별한 이유와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하반기 첫 시험 일정은 언제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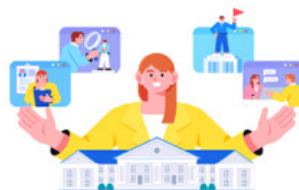
공공조달관리사가 특별한 이유 3가지

사업관리 분야 최초의 국가기술자격



수십 년간 공백이었던 공공조달 전문성
인증의 공식 출발
응시 자격 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 가능

전국 5개 전문대학 공공조달학과 신설



단순 자격 시험을 넘어 학과 신설·교육
인프라로 이어지는 생태계 구축, 조달
전문인재 양성 기반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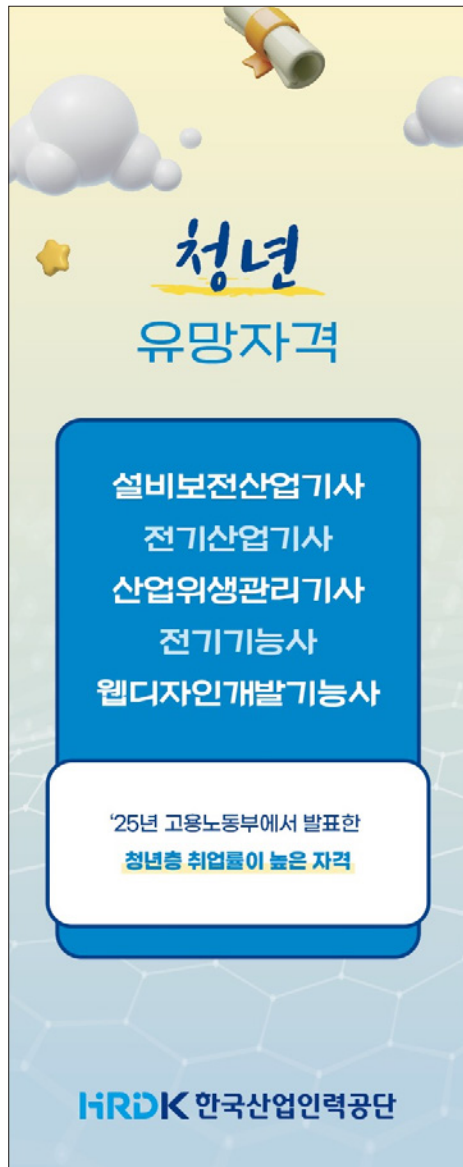
조달청 우대 방안 예고



조달청은 자격 취득자 대상 공공조달
업무 우대 방안을 마련할 예정,
민간 컨설팅·검수 분야 활용 기대

자격 시험 일정

구분	원서접수	시험일	합격자 발표
필기	9.14.~9.17.	10.3.	10.12.
실기	10.12.~10.15.	11.14.	12.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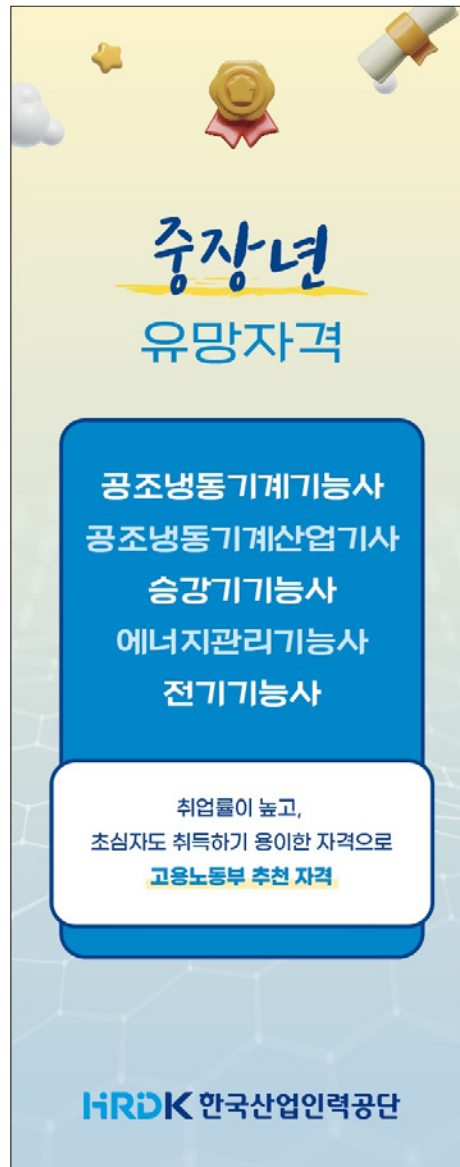


청년
유망자격

설비보전산업기사
전기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기사
전기기능사
웹디자인개발기능사

'25년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청년층 취업률이 높은 자격

HRDK 한국산업인력공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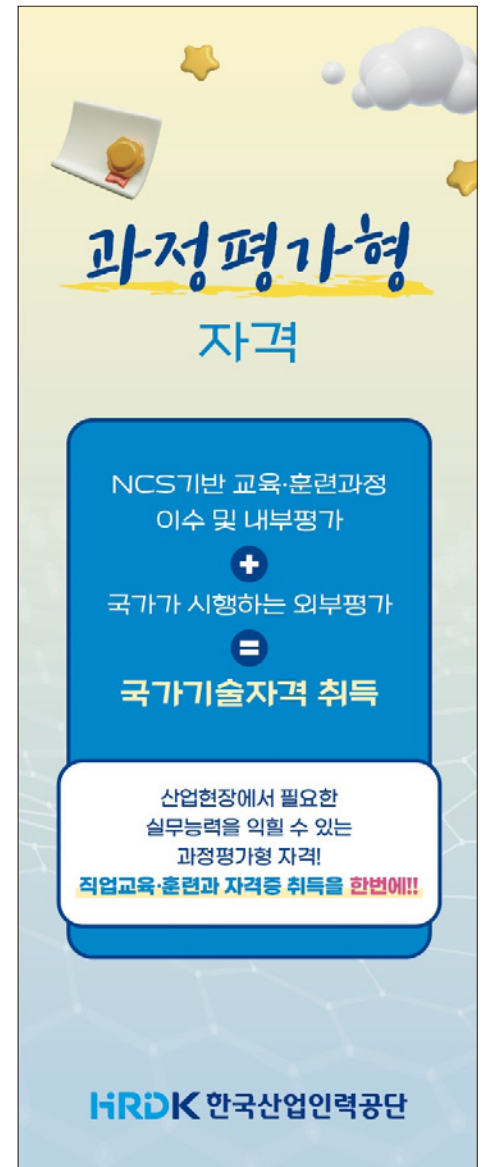


중장년
유망자격

공조냉동기계기능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승강기기능사
에너지관리기능사
전기기능사

취업률이 높고,
초심자도 취득하기 용이한 자격으로
고용노동부 추천 자격

HRDK 한국산업인력공단



과정평가형
자격

NCS기반 교육·훈련과정
이수 및 내부평가
+
국가가 시행하는 외부평가
=
국가기술자격 취득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실무능력을 익힐 수 있는
과정평가형 자격!
직업교육·훈련과 자격증 취득을 한번에!!

HRDK 한국산업인력공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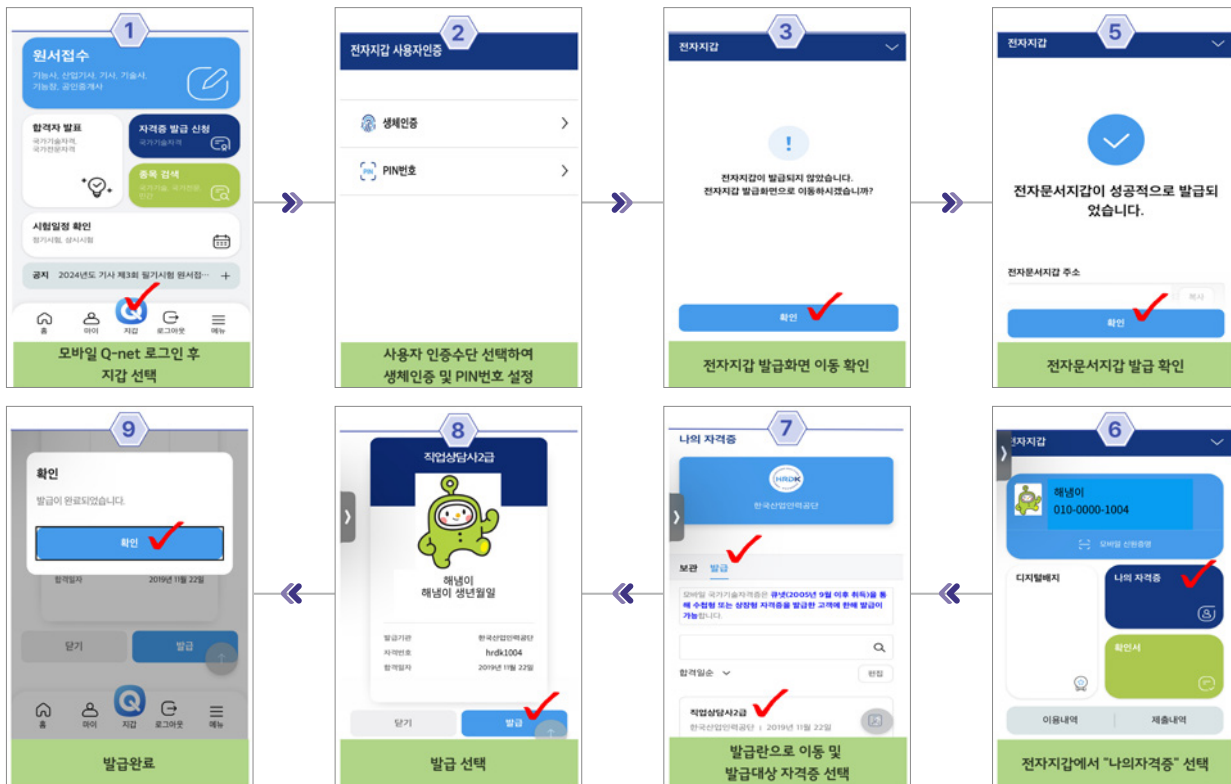
모바일 큐넷 전자지갑 활용하기 모바일자격증, 디지털배지 발급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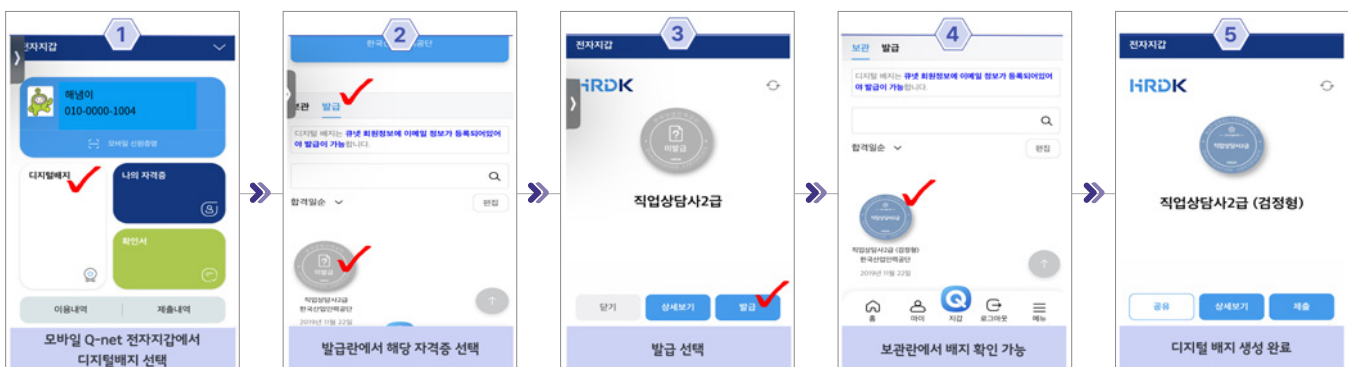
QR코드를 스캔하면 큐넷(Q-Net) 공지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했다면? 큐넷 전자지갑 내 디지털 배지와 모바일 자격증을 발급 받으세요!
클릭 몇 번이면 발급 가능! 언제 어디서든 나의 자격 취득내역을 증빙할 수 있어요!

1 모바일 큐넷 전자지갑 활용하기_모바일자격증



2 모바일 큐넷 전자지갑 활용하기_디지털배지



완료!



직무능력은행제, 국가공인 민간자격까지 담다!

2026년 7월부터 국가공인 민간자격 연계 확대



*직무능력은행제란?

흩어져 있던 개인의 자격·교육·훈련·경력 정보를 한곳에 모아,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 공인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는 통합 서비스입니다.



직무능력은행에 새롭게 연계되는 정보는 무엇일까?

기존 연계 정보



자격



교육



훈련



경력



확대 연계 정보



국가공인
민간자격



K-뉴딜
아카데미



해외취업
경력정보

연계되는 국가공인 민간자격 (예시)



무역영어

대한상공회의소



한자

대한상공회의소



ITQ

한국생산성본부



GTQ

한국생산성본부



SMAT

한국생산성본부



ERP정보관리사

한국생산성본부



전산세무회계

한국세무사회



DIAT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K data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등 17개
종목

* 2026년 7월 10개 종목, 2027년 1월 IT-데이터-세무 분야 7개 종목 순차 연계 예정(자세한 내용은 직무능력은행 홈페이지 참고)

자격 외에도 훈련·경력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다고?

K-뉴딜
아카데미
참여 정보



기업 특화 직업훈련
참여 이력

청년일경험
참여 정보



고용24를 통해 운영 관리되는
청년일경험 참여 정보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
자격 정보



현장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훈련교사 정보

해외취업자
경력 정보



해외 근무 경험을 국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흩어져있던 당신의 직무능력, 이제 직무능력은행에서 한 눈에 관리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직무능력은행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 직무능력은행 홈페이지(bank.ncs.go.kr)



고용노동부

HRDK 한국산업인력공단

이거 괜찮다... 폭염에 뜨는 '공조냉동기계기사' 무엇인가?



2026년 8월 1일 위키트리 손기영 기자(sky@wikitree.co.kr)

QR코드를 스캔하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험 접수자 최근 5년 새 2배 이상 늘어

최근 폭폭 찌는 폭염이 일상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냉방·공조 설비를 다루는 기술인력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공조냉동기계기사 시험 접수자는 최근 5년 새 2배 이상 늘었고 자격 취득자도 2000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조냉동기계기사는 냉동과 공기조화에 관한 공학적 이론과 관련 설비의 설계·시공·운영·유지관리 능력을 평가하는 국가기술자격시험이다.

최근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공조냉동기계기사 시험에 접수한 인원(필기·실기시험 접수자 합계)은 3만 2272명으로 2020년 1만 4618명보다 무려 120%가 증가했다. 공조냉동기계기사 시험 접수자는 2019년에 연간 증가율 24.7%를 보이며 1만 명을 돌파(1만 2444명)한 이후 꾸준히 증가했다.

2022년에는 인원이 1만 4890명으로 주춤했지만(전년 대비 15.6% 감소), 2023년 다시 2만 715명으로 39.1% 급증했다. 이어 2024년(2만 5165명·21.5% 증가)과 지난해(3만 2272명·28.2% 증가)까지 20%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공조냉동기계기사 시험 응시자 수가 많은 만큼 자격 취득자도 늘었다. 공조냉동기계기사 자격 취득자는 2020년 1268명에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며 지난해 1993명까지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연합뉴스에 "공조냉동기계 기술은 제빙, 식품저장, 물류 분야는 물론 경공업, 중화학공업, 의학, 축산업, 원자력 공업과 대형 건물의 냉난방 시설까지 광범위한 분야에 활용된다"라며 "관련 전문 인력 수요도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조냉동기계기사는 건축물과 산업시설에 설치되는 냉동·냉장, 냉난방, 공기조화 설비를 설계하고 운전·관리할 수 있는 전문성을 평가하는 국가기술자격이다. 냉동 사이클과 열역학, 유체역학, 전기제어, 배관, 에너지 관리, 안전관리 등 기계설비 전반에 관한 지식이 요구된다. 자격 취득자는 설비의 용량을 산정하고 장비를 선정하며 시운전 과정에서 성능을 확인하거나 고장 원인을 분석해 유지보수 계획을 세우는 업무를 맡을 수 있다.

공조냉동기계기사 시험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한다. 필기시험은 에너지관리, 공조냉동설계, 시운전 및 안전관리, 유지보수 공사관리 등 네 과목으로 구성되며 객관식으로 치러진다. 실기시험은 냉동 및 냉난방설계를 다루는 필답형 시험이다. 필기는 과목별 최저 점수와 전 과목 평균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실기는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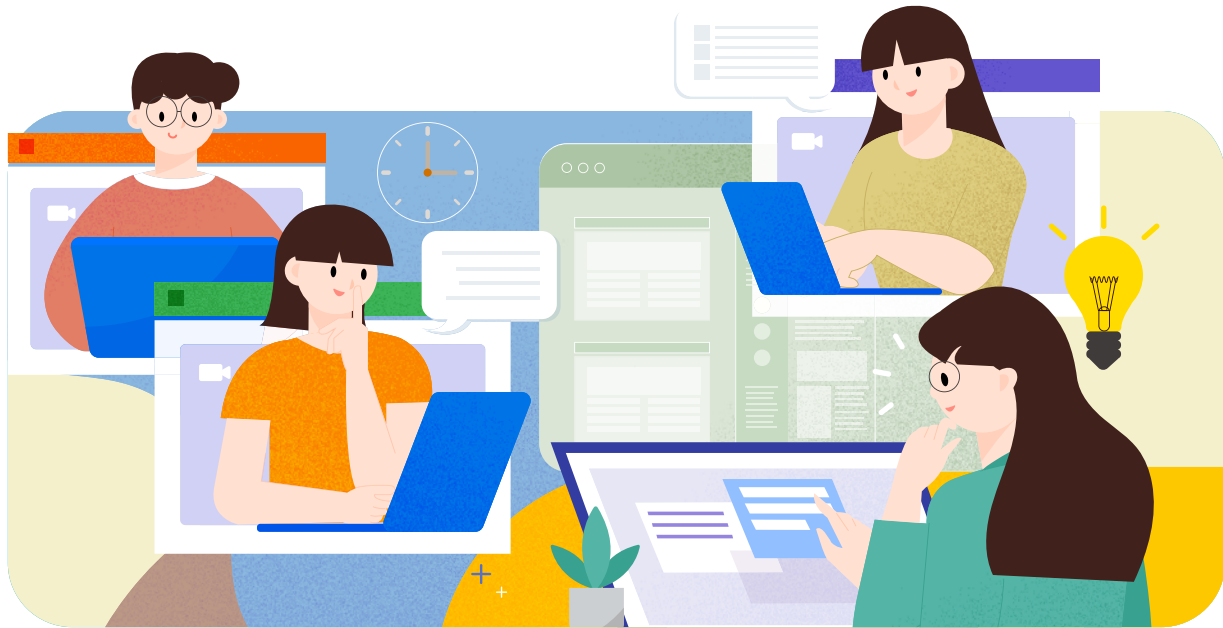
취득 후에는 냉동·냉장창고, 식품·화학 공장, 대형 건축물, 병원, 데이터센터, 시설관리업체, 기계설비 시공업체 등에서 설계, 시공, 운전, 점검, 에너지 절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공조 설비는 실내 온도와 습도, 청정도뿐 아니라 생산 품질과 에너지 비용에도 영향을 주므로 현장에서는 안전수칙과 관련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AI시대에도 '컴활' 건재... 청년 취업자 자격증 1위



2026년 8월 12일 국민일보 권지혜 기자(jhk@kmib.co.kr)
QR코드를 스캔하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1급 응시자 수 24% ↑ “데이터 다루는 능력 여전히 중요”

국내 500대 상장기업에 입사한 청년들이 가장 많이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은 컴퓨터활용능력(컴활)인 것으로 조사됐다. 인공지능(AI) 시대에도 실제 업무 현장에서 데이터를 다루는 사람의 능력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024년 당기순이익 기준 국내 500대 상장기업에 입사한 만 18~34세 청년 6만5743명의 국가기술자격 취득 현황을 조사한 결과 취업자가 가장 많이 보유한 자격증은 컴활 1급과 2급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자격증이 있는 취업자 2만3055명 중 9780명(42.4%)이 대한상의가 시행하는 11종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했고 이 중 컴활 1급은 5473명, 2급은 3967명으로 나란히 1, 2위를 차지했다. 이어 지계차운전기능사, 전기기능사, 위험물산업기사, 전기기사 순이었다. 조사는

한국고용정보원의 국가기술자격 취득 및 고용보험 연계 데이터 자료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최근 10년간 응시자 수도 꾸준히 증가했다. 일시적으로 응시자가 폭증했던 코로나19 특수기(2020~2021년)를 제외하고 2016~2019년, 2022~2025년의 연평균 응시자 수를 비교한 결과 컴활 1급 응시자는 14만 9000명에서 18만4000명으로 23.4%, 2급은 18만명에서 21만9000명으로 21.3% 늘었다.

정동열 한국공학대 교수는 “AI가 아무리 뛰어난 결과물을 만들어내더라도 그 바탕이 되는 데이터가 맞는 구조인지, 흐름이 논리적인지 판단하는 통찰은 사람의 몫”이라며 “컴활 자격은 데이터 통찰력의 기본기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6년 8월 국가기술자격 & 국가전문자격 시험일정



향후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큐넷(Q-Net)을 통해 최신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QR코드를 스캔하면 큐넷(Q-Net) 국가자격 월간 시험일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8월 August

SUN	MON	TUE	WED	THU	FRI	SAT
7/26	7/27	7/28	7/29	7/30	7/31	1
						제139회 기술사 면접시험 제63회 변리사 2차 시험
제2회 기사 실기시험(7.18~8.5.)						
2	3	4	5	6	7	8
						제139회 기술사 면접시험
	제2회 기사 실기시험(7.18~8.5.)				제3회 기사 필기시험(8.7~9.1.)	
						제21회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1차 시험 제40회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차 시험
9	10	11	12	13	14	15
						제139회 기술사 면접시험
						제3회 기사 필기시험(8.7~9.1.)
						제16회 산업안전지도사 3차 시험 제16회 산업보건지도사 3차 시험
						제12회 소방안전교육사 12차 시험
16	17	18	19	20	21	22
						제3회 기사 필기시험(8.7~9.1.)
						제140회 기술사 필기시험 제34회 청소년지도사 1차 시험
23	24	25	26	27	28	29
						제3회 기사 필기시험(8.7~9.1.)
						제80회 기능장 실기시험(8.29~9.16.) 제3회 기능사 실기시험(8.29~9.16.) 제12회 손해평가사 2차 시험 제35회 공인노무사 2차 시험
30	31	9/1	9/2	9/3	9/4	9/5
						제3회 기사 필기시험(8.7~9.1.)
						제80회 기능장 실기시험(8.29~9.16.) 제3회 기능사 실기시험(8.29~9.16.)
						제35회 공인노무사 2차 시험



도로 위의 주치의가 되기 위해



2025년도 국가자격 취득자 우수사례 공모전 입상작, 정수민 님(대현이앤씨(주) 교통기사)



“고속도로는 왜 막힐까?”

“맨 앞차는 도대체 어디서 뭐하고 있길래
차들이 멈춰서 못 가고 있는 거지?”

이처럼 어릴 적부터 교통은 제게 단순한 풍경을 넘어, 수많은 질문과 탐구의 대상이었습니다. 특히 신호 없이도 시속 100km/h로 달릴 수 있도록 설계된 고속도로에서 갑작스레 발생하는 정체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었습니다.

그 의문은 시간이 지나서도 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대학교 2학년 2학기를 앞둔 여름방학, 아버지의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정체에 갇혀 창밖을 바라보던 저는 다시금 어릴 적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도시의 동맥이라 불리는 고속도로가
이렇게 자주 멈춰도 괜찮은 걸까?”

“사람의 동맥이 막히면 생명이 위태롭듯,
도시의 동맥이 막히는 것도
도시 전체 기능에 위협이 되지 않을까?”

이 단순한 궁금증 하나가 오랜 호기심을 자극했고, 결국 저를 어문계열에서 교통공학이라는 전혀 다른 분야로 이끌었습니다. 인생의 방향이 바뀐 순간이었습시다.

물론, 처음 교통 분야의 문을 두드릴 당시에는 두려움이 컸습니다. 그러나 첫 수업이었던 ‘교통계획’ 오리엔테이션 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아, 이 분야를 하기 위해 내가 태어났구나.” 그 순간부터 저는 교통 중에서도 교통계획에 더욱 깊은 애정을 품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교통영향평가기술자’라는 생소하지만 구체적인 진로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발점이 되는 교통기사 자격증을 알게 되자마자 망설임 없이 도전했습니다. 그러던 중 ‘서비스 수준(Level of Service)’이라는 개념을 처음 접하며 새로운 물음이 생겼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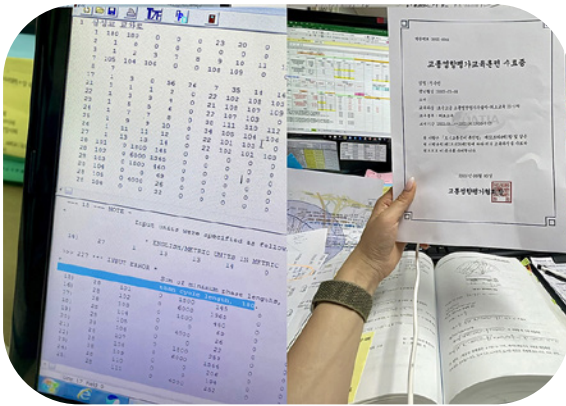
“도로의 질적 운행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인 서비스
수준이 높게 책정된 도로는, 교통사고율도 낮을까?”

이 역시 단순한 질문이었지만,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Webster의 최적 신호주기 공식, 평균 지체시간 계산, 그리고 신호 교차로 용량 산정법 등을 반복해서 적용해보았지만, 이론만으로는 해답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답답한 마음에 친구에게 고민을 털어놓았고, 친구는 ‘도시는 책상이 아니라 현장에서 바뀌는 거야’라는 대답으로 대신했습니다.

그 말을 계기로, 뜻이 맞는 친구 두 명과 교통기사 자격증 공부를 병행하는 동시에 팀을 꾸려 교통사고 다발 지역인 관악구 신림동 신호 교차로를 분석하는 프로젝트를 기획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건물 옥상에서 교차로를 내려다보며 거시적 관점으로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은 마지막 주간에 진행된 현장 조사였습니다. 책이나 이론으로는 결코 알 수 없었던, 현장만의 디테일들이 그제야 비로소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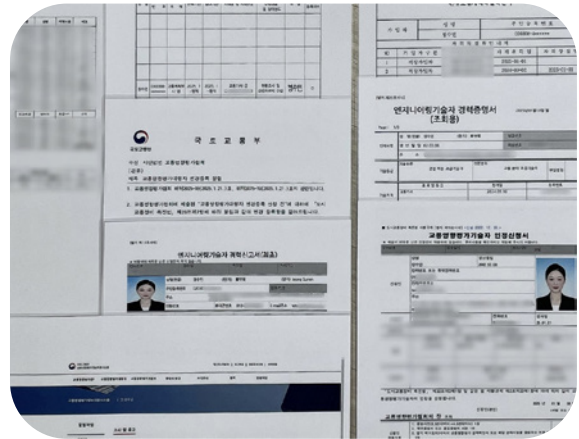
일례로, 한 고령 보행자가 신호가 끝났음에도 횡단보도를 미처 다 건너지 못해 빨간불에도 계속 걷는 상황이었고, 차량들은 당연하듯 멈추어 기다려주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차량과 보행자 모두에게 충분한 신호 시간이 부여된 교차로였지만, 실제로는 예기치 못한 대기행렬이 발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제야 ‘이론에 현장을 끼워 맞추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이 지역이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이라는 점을 간과한 점이 결정적인 실수였습니다.



결국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관찰자의 시선 대신 직접 보행자로서 현장 안으로 들어갔고, 수십 차례 현장을 부닥치며 딜레마존, 버스베이 충돌, 불합리한 보행 신호 유무 등 실질적인 문제들을 마주하였습니다. 결국 기존 대안을 전면 수정했고, 총 7개의 세부 시나리오를 수집해 200페이지에 달하는 개선안 보고서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기술의 본질이 ‘사람을 중심에 두는 것’이라는 철학을 몸소 배울 수 있었던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이후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평소 ‘인간스피커’라고 불리는 제가 교통만큼은 조용히 몰입하던 모습을 기억해주신 지도교수님께서 ‘딱 너처럼 교통을 사랑하는 회사야’라는 말과 함께 교통영향평가 전문 회사의 실습 기회를 추천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곧바로 실무 현장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당연히 학교 수업과 회사의 실습을 병행한다는 것은 정말이지 바쁜 나날의 연속이었지만, 그 시간을 견딜 수 있었던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회사가 저를 단순한 실습생이 아닌 ‘예비 전문가’이자, ‘미래의 동료’로 존중해주었기 때문입니다.



현장 조사, 주차장 입지 검토, 보고서 작성은 물론 교통영향평가 심의 현장까지 함께 동고동락하며 실무의 전 과정을 온몸으로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저 역시 그러한 기회에 부응하고자 매일 한 시간 일찍 출근하여 분 단위로 일정을 계획했고, 학교 수업 역시 소홀히 하지 않기 위해 야간수업까지 청강하며 부족한 개념을 보완했습니다. 새벽 4시에 집에 들어가는 일은 당연한 일상이 되었지만, 그 노력은 전 과목 A+라는 결과로 이어졌고, 이론과 실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힘을 키우는 값진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돌아켜보니 교통기사 자격증은 단순한 진로 준비를 넘어, 실질적인 성장의 시작이자 취업의 출발점이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실무 경험을 쌓는 과정에서, 저는 제도적 사각지대 하나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드라이브스루’ 매장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급격히 늘어난 드라이브스루는 이제 도시의 일부가 되었지만, 새롭게 생긴 시설이다보니 현행 교통영향평가 제도에서는 평가 대상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현재의 제도는 면적, 호실, 홀 수와 같은 ‘정량적 기준’을 중심으로 평가 대상을 구분하고 있기에 드라이브스루와 같이 새롭게 생긴 시설은 아직 명확한 정량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드라이브스루는 본선 도로에 영향을 주고, 교차로의 흐름을 방해하며, 보행자의 안전에도 위협이 되는 실질적인 교통 변수입니다. 결국 도시 공간과 교통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외면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시 말해, 저의 가까운 목표는 드라이브스루 매장이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실무자로서 제도 개선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교통공학을 공부하며 하나의 교차로를 개선하면 수많은 운전자의 하루가 달라지고, 신호 현시 하나를 최적화하면 사고를 줄이며 나아가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직접 실감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당초 자격증을 준비할 당시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단순 암기에 치중하기보다 원리를 이해하고 구조를 파악하려는 학습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지금은 실무자로서 도로를 진단하고 장래의 교통수요를 예측하며 개선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이 경험이 큰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변화된 환경 속에서 시민들이 작지만 실질적인 편리함을 느끼는 순간, 마치 의사가 되어 아픈 환자를 완치시키는 것처럼 마음 깊은 곳에서 진심 어린 보람이 찾아옵니다. 이러한 감정이 교통이라는 분야를 더욱 사랑하게 만든 원동력입니다. 저는 그 변화에 중심에서 수치에 머무르지 않고 사람을 향하는 '살아있는 기술자'가 되고자 합니다.

나아가 제게는 더 큰 꿈이 있습니다. 바로 '최연소 여성 교통기술사'가 되어, 작은 질문과 용기에서 비롯된 이 여정을 기술사로서 이어가고 싶습니다. 물론, 그 길이 쉽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도시를 바꾸는 기술사의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교통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지 이제 겨우 1년이 지났지만, 실무와 학업, 국가기술자격증 준비를 병행하며 쌓은 시간들은 저를 단단히 성장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새싹 기술자일지 몰라도, 마음은 누구보다 단단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제게 아이가 생긴다면 꼭 들려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OO야, 여기가 엄마가 설계한 교차로야. 예전에는 정말 막히는 곳이었는데, 엄마가 치료해줬단다.”

그날이 오기까지 저는 계속해서 초심을 잃지 않고 질문을 품고 또 실천하며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시작에는, 교통기사 자격증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제게 심어준 이 첫 번째 자격은 단순한 증서를 넘어, 진짜 기술자로 나아가는 문을 제공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문을 열고 더 넓은 세상으로 도약 중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끝에서, 저는 반드시 세상에 꼭 필요한 멋진 기술사가 되어있을 것입니다.





나는 '진새조' 진갑이 넘어 자격을 딴 대한민국의 새내기 조경기사다



2025년도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우수사례 입상작, 최용석 님(영진직업전문학교, 조경기사)



퇴직 후, 다시 시작된 조경기사의 꿈

저는 30여 년간 임상병리사로 근무했고, 2022년 8월 만 61세로 정년퇴직했습니다. 퇴직 한두 해를 앞두고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고민하던 어느 날, 퇴근길 전봇대에서 '과정평가형 조경기사반 모집' 광고를 보고 직업전문학교를 찾아갔습니다.

사실 대학 전공도 조경학이었지만 군 복무 후 생계로 인해 병원에 취직했고, 일과 학업을 병행하며 겨우 졸업은 했습니다만, 조경기사 자격증을 딸 생각은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임상병리사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퇴직이 가까워질수록 '조경'에 점점 미련이 생겼지만, 나이가 나이인지라 검정형 시험에 합격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직업전문학교의 상담을 받으면서 과정평가형 과정은 현장 실무형 교육·훈련으로 검정형 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동급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으면 직장인도 국비 지원을 받아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립학교 연금법을 적용받는 직장이라,

재직기간에는 자격이 안되고 퇴직 후에는 가능했습니다.

과정평가형 조경기사 과정은 1,000시간으로, 하루 8시간씩 주 5일을 공부해도 최소 6개월이 필요하고 내일배움카드 없이는 약 700만원의 수강료 전액을 자비로 부담해야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퇴직하고 해야겠다고 마음먹었고, 훈련기관도 미리 알아놓고 자료도 모으고, 조경기능사 시험을 공부하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진갑이 넘어서 공부하고 자격증을 딴 새내기 조경기사, '진새조'

퇴직 후 바로 집 부근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로 가서 상담과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대면 면접에서 '나이도 있는데 1,000시간이나 되는 수업을 잘 받을 수 있겠느냐, 도중에 실패하면 나중에 불이익도 있는데'라고 질문했고, 저는 '할 수 있습니다. 꼭 하고 싶은 일이었는데 최선을 다해 한번 해보겠습니다.'라는 대답으로 면접을 통과해 내일배움카드를 발급 받았습니다.



직업전문학교의 입학 면접에서도 같은 질문을 받았고, 마침 조경기능사 시험도 합격해서 더 당당히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0월 5일부터 2023년 4월 27일까지의 과정을 수료하고, 2023년 5월 치러진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자격시험을 통과했습니다. 만 61세에 공부를 시작하여 만 62세에 조경기사가 된 것입니다.

저 스스로에게 '진새조'(진갑이 넘어서 공부하고 자격증을 딴 새내기 조경 기사)라는 별명도 지어 줬습니다.

배우고 익히며 결국 도달한 취업

주 5일 수업 중 4일은 학원으로 1일은 실습장으로 출근 아닌 출근을 했고, 총 출석 일수 143일 중 장모님의 장례식 사흘을 제외하면 지각이나 조퇴 한번 없이 최선을 다해 공부했습니다. 잘 이해되지 않는 문제와 캐드 연습 등은 스터디그룹과 방과 후 복습으로 도움을 받았고, 지칠 때마다 주위의 기도와 관심으로 힘을 얻었습니다. 드디어 모든 과정을 수료하고 자격시험에도 합격했습니다. '이 나이에 어떻게 조경기사가 되었지' 자다가도 한 번씩 잠이 깰 정도로 감사했습니다.

많은 축하를 받았지만, 취업은 쉽게 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나이가 많았고, 나이를 보완하려면 무슨 준비를 더 해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평소 산을 좋아해서 언젠가 꼭 하고 싶은 산림기사 시험을 준비했고 구청 사이트에서 일자리를 검색하며, 지게차운전기능사와 굴착기운전기능사도 취득했습니다. 시험에 자신이 없어서 산림기사와 산업기사를 동차 지원

하였는데, 모두 동차로 합격해 내공을 쌓아 갔습니다.

그리고 지인의 소개로 2024년 4월부터 드디어 식재와 시설물 설치 및 나무병원을 하는 조경회사 (주)도시정원에 취직해 다양한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배우며 경험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새롭고 짜릿한 감사의 연속

63세에 취업한 대한민국의 새내기 조경기사로서 하루하루 회사와 사회, 저에게 충실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초기·엔진톱·트리머·미니굴착기 등의 장비도 과정평가형 과정의 실습시간에 다루었고, 캐드·PPT 등의 프로그램과 설계도면, 소나무와 반송의 가지치기와 수간주사, 화훼와 수목의 식재 등도 실습 교육을 통해 경험해 현장 업무에 큰 두려움 없이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과정평가형 자격 과정은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일 중심의 직업교육·훈련과 자격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현장 맞춤형 우수 기술인재 배출을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학력과 경력과 관계없이, 특히 저같이 나이가 많아도 해당 교육·훈련과정을 성실히 이수할 의지가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국비 지원이 가능하고, 실무 중심 교육으로 기업도 선호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취업이나 진로, 인생의 기로에서 망설이거나 주춤거리는 누군가가 있다면,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과정을 권합니다. 분명 큰 힘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